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펴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이 되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기홍목사님과 미국은혜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플러이교회 소식**

12월 20일 주일에 보플러이교회를 10개월 만에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없는 가운데서도 세 명의 신학생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어서 교회는 별 어려움이 없이 든든히 서 가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12월 25일 성탄절이 휴일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 전 주일에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도 20일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켰습니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신학생 세 명은 앞으로 이 년 더 공부를 하고 싶어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년만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본인들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2년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이년을 더 공부하고 4학년으로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태국의 신학생들 중에는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위의 강권에 의해서 신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회 세 명의 신학생들은 본인들이 가고자 해서 마음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신학교 교장도 2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말을 해서 앞으로 이 년 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태국도 한국처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콕 근처 도시에 있는 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그 시장에서 생선을 사간 분들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도시가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방콕과 주변 도시는 일월 한달동안 학교가 휴교 되었고 대부분의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모든 집회와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소식**

저는 11월 26일에 태국에 입국해서 14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내도 저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결혼 후 처음으로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아내는 막내가 올 4월에 검정고시를 치고 합격하면 막내와 같이 태국에 오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과 함께 태국에 있으면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오고 아내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이 모든 일을 다하고 사역도 똑같이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특히 아내의 수고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딸은 편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에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부산에서 학교를 마치고 싶었는데, 딸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가서 좀 더 태국어를 다양하게 배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미국은혜한인교회를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선교사역이 펼쳐 지기 원합니다.

다시 선교지를 방문해 사역을 펼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미국은혜한인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올 한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미국은혜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2.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더욱 더 든든히 서 가도록
3. 세명의 신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4. 미얀마성도중에도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5. 보플러이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6. 한국과 태국에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7. 막내가 검정고시 잘 준비하고 올 4월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도록
8. 딸의 편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태국 박경덕 신미선 선교사-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2월 21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288명 자체파송 8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님들께**

2020년을 마감하며 살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흔히 "살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평화, 평안'을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살롬"의 원래 의미를 깊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살롬'은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 둘이 하나로 됨'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과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는 비밀 곧 "임마누엘"이 살롬의 참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속받은 성령을 통해 비로소 이 "임마누엘"과 "살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을 이루게 할 주님과 임마누엘함을 방해하는 이 땅에 속한 욕심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암울했던 2020년과 다가오는 2021년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예상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이 우릴 위해 가지고 계신 "살롬"과 "미래"와 "소망"을 생각과 길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찾아 "임마누엘"해야겠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광야 생활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이외에 누구도 배고파서 죽거나 생필품이 부족해서 죽은 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표현해서 실패한 1세대가 아니라 성공한 믿음의 2세대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알바니아 소식...**

저희는 3년 전에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난 현지 CCC 팀을 만나서 함께 파트너십으로 City Church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새로이 CCC 교회개척팀이 개편되면서 현지 사역자 3가정이 더 영입되면서 이제 개척 안정기에 접어들었기에 새로운 개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며 새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주신 주님을 믿기에 지금 코로나로 뒤숭숭한 시기여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도 현지인들과 함께한다는 안정을 떠나 새로 시작하는 것도 억지스럽기도 한 큰 도전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보고 가는 길에 담담함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특히 사역에 있어 영혼들을 직접 만나야 하는 특수 상황에서 6월부터 조금은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도 활동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장소가 없이는 모임도 예배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초심을 생각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상황을 쫓아 다음 믿음의 발걸음을 또 내딛고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 오른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면 흥해길로 향하는 것이 이해되지도 않고 어리석게 판단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재는 모든 문제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분과 조금만 믿음으로 더 가면 12 우물과 70의 종려나무 그리고 요청하면 시원한 물을 내뿜는 반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족하고 약한 믿음을 새로 굳건히 다져 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 중 보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연말에 가족 사진을 찍어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시온이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시험 때문에 그리고 유럽의 코로나 상황으로 비행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계속 이어져 집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9일에 잠시 방문하는 계획이 있지만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 일정이 또 어떻게 변동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사진은 우선 내년 첫 기도편지에 올릴 기약을 가져봅니다. 2021년 새해에는 또 어떤 소식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모르겠지만 고전 2:9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사실 만큼 중요하고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것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견인해하시고 계신 것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선일 것을 꼭 붙잡고 출발하길 여러분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으며, 주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가는 오늘의 광야의 길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려웠을 2020년 동안에도 부족한 저희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함께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기는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하여 다시 만날 대면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길.. 큰 그리움을 담아 다시 한번 모든 절망적 상황속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임마누엘함으로 살롬이 충만한 2021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살롬~~~

**<기도제목>**

1. 주님과 임마누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영어로 말씀을 전하고 알바니아로 통역을 하는데, 알바니아어로도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3. 주님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과 같은 형제와 사마리아 여인같은 자매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새로 개척할 Grace International Church의 장소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 시온이가 헝가리에서의 온라인 수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잘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오판석 정미라 (시온/시몬)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몰도바 소식

몰도바의 코로나 상황 확진자 164,575명, 사망자 3,557명입니다. (2021년 2월 9일 20시 현재시간) 몰도바는 현재 입국이 가능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14일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도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량 예방 접종 계획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 백신 접종은 모든 몰도바 거주자들에게 실행할 계획으로 2월초부터 3단계에 걸쳐 무료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몰도바 보건부) 이 백신 접종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1) 보건/사회분야 종사자 (2) 고령자, 교육자, 법집행자 (3) 모든 거주자들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Pfizer사의 백신을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선교사 소식

저는 다음 달인 3월부터 시작될 여수 MTI 훈련원에서 하게 될 언어 훈련을 준비하며 별탈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영어권 선교사, 언어 교사들과 함께 합숙하며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국내의 사정으로 이 합숙 훈련의 방식이 변경되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훈련원에서 훈련을 위한 언어 수업을 하고, 합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원 인근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방법을 추천하였고, 이 원룸에 거주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주중에는 훈련원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방식은 조금 바뀌어 불편하긴 하겠지만, 부족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배우고 익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지내고 있던 선교관을 떠나서, 여수로 내려가 새롭게 시작할 언어 훈련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이 시기에 치통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좋은 곳을 소개받아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치아 치료할 때 마취가 잘 되지 않아서 치과 가는 일이 두려웠는데, 담대히 나아갔더니 주님이 아프지 않게 잘 치료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치아가 좋지 않아 고생을 했었는데, 좋은 병원을 통해 잘 치료를 받아 잘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를 위해 저렴하게 시술해주는 곳을 소개 받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2. 언어(루마니아어, 영어)를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루마니아어 - 루마니아어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 MTI 훈련원에서의 훈련과 개인 공부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 익힐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3. 주님이 예비해주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4. 몰도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현재 몰도바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개신교 비율은 2% 정도입니다.)
5. 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몰도바 정석영 선교사-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한 이번 2021년에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평강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맞이한 이번 2021년에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평강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BJ 스쿨의 성탄은 이웃초청 잔치였습니다. 새로 온 두 가정이 성탄의 의미를 배우고 함께 소리 높여 노래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 확산 우려로 일요일 사업장은 오늘 (1. 10)부로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숙소가 있는 우한 대학교 역시 곧 방학과 함께 폐쇄되어 앞으로 외부 출입이 불편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1,2월 계획된 도시 내의 만남은 지속 예정입니다. 손과 마음 모아주세요

<기도제목>

- 1) BJ 스쿨의 교사와 학생들이 겨울방학 후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 2) 코로나 19로 흩어져 모여야 하는 기관모임이 더욱 발전하도록
- 3) 언어와 학업(논문), 신변의 안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중국 조00 윤00 선교사-



- ▲ 우울증을 앓는 학생의 감사 나눔
- ▲ 두 학생의 다시 태어나는 의식
- ▲ BJ스쿨 성탄감사행사 (2020. 12. 25)
- ▼ PET병을 모아 이웃을 돕는 BJ학생



YAYASAN KELUATGA KASIH SETIA

사랑의 공동체 소식\_기도편지,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반자르바루

샬롬! 사랑하는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께.

2020년을 돌아볼 때, 그동안 감당했던 사역들과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 은혜로 섬기는 사역을 모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16:9)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쉬움 가운데 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수고한 일들, 여러 관계와 상황 가운데 기쁘기도 하지만, 낙담 되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통하여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섬기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도네시아 역시 제한된 상황이지만, 전도대상자 가정방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어서 종교와 문화, 선입견, 여러 장벽으로 인해서 돌파가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반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역시 기도와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방문전도>

2. 사랑의 공동체 장학관 및 그룹홈 (교육사역)

할렐루야! 이슬람이 강한 칼리만탄에서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세운 현지법인 “사랑의 공동체”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가와 더불어 토지소유권 등기(부동산 743m2)를 현지법인으로 지난 10월에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을 금년 12월에 헐어내고,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장학관 및 그룹홈)을 위한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축허가와 설계도면 (1,2층: 각층 20m X 18m), 시공업체, 건축자금 등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현지 동역자>

3. 인도네시아 코로나 현황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자카르타 수도권 등 높은 인구밀도, 사회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매일 5,000명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일은 5,092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 543,975명, 회복: 454,879명, 사망: 17,081명이고, 저희가 거주하는 남부칼리만탄 역시 계속 증가 중에, 누적 확진자: 13,252명(1일 추가: 85명), 회복: 12,039명, 사망: 531명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아픈 사건으로 대림절 시작과 동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기독교인 6명이 살해(참수) 당하고 교회가 불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시하고 있지만, 85%의 인구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적 갈등과 핍박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쉽게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실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 (화), 인도네시아 Covid-19 현황입니다.)

<기도제목>

- 1)날마다 선교는 기도, 전쟁, 순교임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생활과 사역이 되게 하소서!
- 2)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건축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 3)사랑의 불꽃 졸업생들과 동역자들이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복음화 사역이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 4)Covid-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소서.
- 5)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사랑의 불꽃 3기와 자카르타 사랑의 불꽃 3기가 재개되도록.
- 6)무슬림 가정방문 전도를 통하여 전도자와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7)부르심에 합당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네팔 이예신 선교사--지난 9개월 동안 앓았던 악성 림프암의 6차 항암 결과 모든 림프암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항암제도 없는 혈액암은 그대로 있게 하셔서 날마다 제 날수를 계산하며 전능자만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받았습니다 잘회복되고 완치될수있도록 주님의치유의손길을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3. 터키양창모 선교사님이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혜영선교사-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